

# 병원장의 호소 “환자들 최후의 보루...필수진료 유지를”

###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 출사표...의-정 갈등 골 깊어져 정신전남대병원장 “응급실·중환자실 등 차질없이 해주길”

전남대 병원장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자 호소문을 내고 필수진료 유지를 간곡히 당부하고 나섰다.

병원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최악의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8일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전남 오후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는 135명(전남대 92명, 조선대 43명)에 달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교수 총원을 생각하면 각 32.5%, 26.7%의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29일 오후까지 사직서를 제출받기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사직서 제출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직서 제출과 함께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교수들이 52시간 근무 준법 투쟁을 실시해 조만간 의료공백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의료공백이 가시화하자 정신전남대병원장은 소속 교수들에게 '필수진료 유지'를 호소했다. 정 병원장은 이날 오전 본·분원 소속 350명 임상교수 이

상 교수들에게 호소문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정 원장은 “비상 진료 상황에서 갈수록 누적되는 피로도 증가와 의대 비대위의 결정으로 일부 과에서 외래, 응급 진료 범위에 대해 (축소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병원은 광주·전남 환자들에게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진료를) 유지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과의 상황으로 진료 기능을 축소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진료 부문(진료처)과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상황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의 강경 투쟁 전명으로 한층 경색되고 있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서 재논의하지 않고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감행한다면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사에게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

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의 강경투쟁 배경에는 총선 이후 의료계에서 정부의 의대증원을 막을 수 있는 동력이 소진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지역 상급병원 의대교수들과 전공의들도 총선을 치르는 4월 10일 전에 의정 갈등이 해결됐으면 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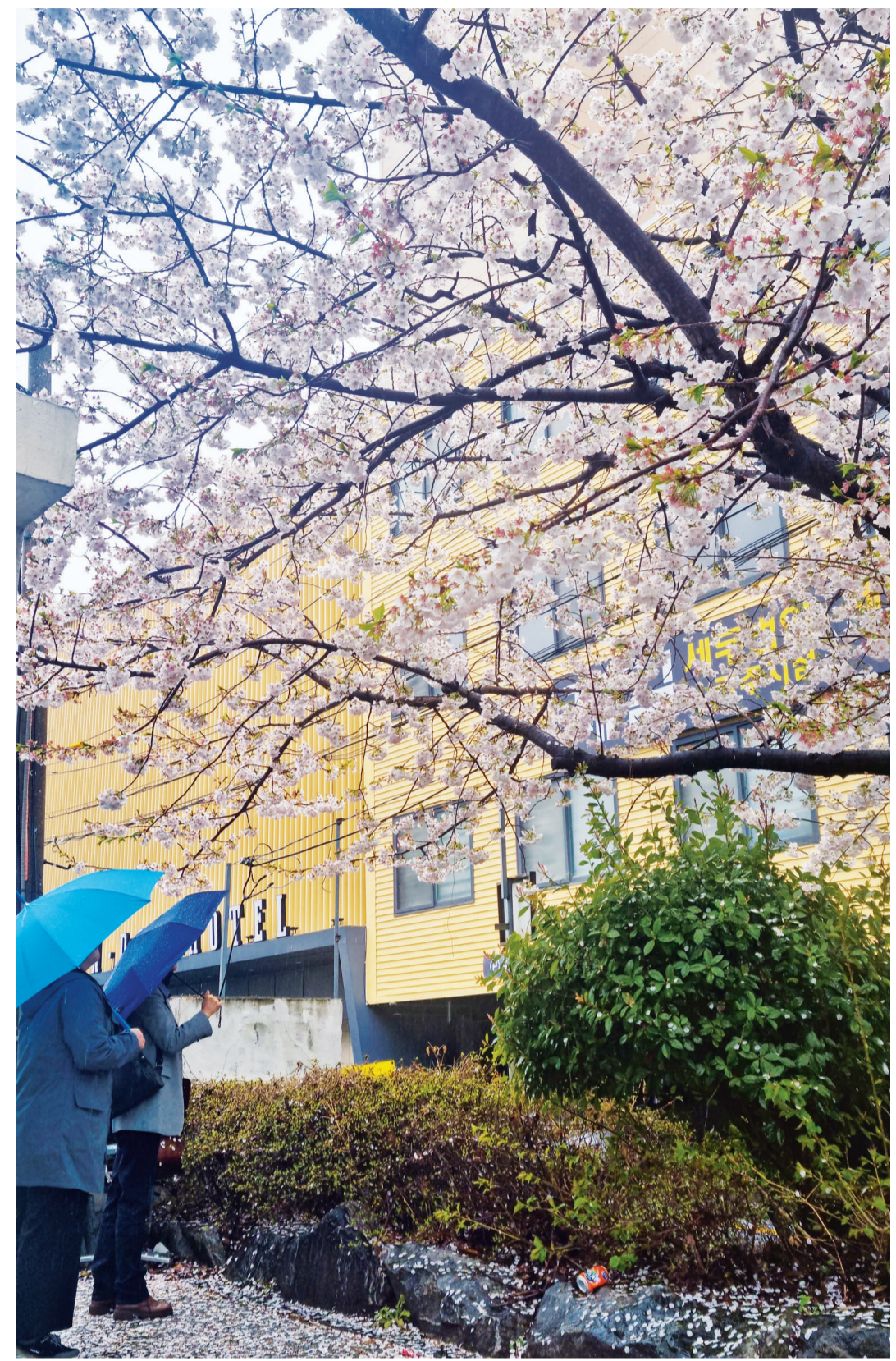
이에 따라 29일까지 사직서 제출에 동참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이 깊어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전남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한 신생아의 부모는 인터넷 카페에 “아이가 태어나서 뇌실 내출혈로 니쿠(신생아 중환자실) 있다가 퇴원하는데, 최근 갑자기 머리둘레가 1-2cm 커지고 수두증 증상이 있다고 해 신경외과 진료 필요하다고 진단 받았다”면서 “다음주 월요일 소아과 초진을 예약했는데 신경외과는 파업으로 초진이 힘들다고 한다. 급하면 응급실로 가라고 해 난감하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소아과 진료를 받을 때 신경외과의 협진이 예정돼 있지만,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해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초조하고 심란하다”고 토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봄비, 꽃비 봄비가 내린 28일 광주시 동구의 도로변에 봄비를 머금은 벚꽃이 만개해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고령 장애인 지원 등 총선 정책 반영해달라”

### 광주 220개 장애인 단체 제안

광주 장애인 단체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 지역 후보자들에게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광주 220개 장애인 단체들은 2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 총선 후보자 광주 장애인정책 선언식'을 열고 광주 지역 총선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복지를 위한 5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핵심 정책은 고령 장애인 지원 대책 수립,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전환 체계 구축,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국가 책임제 실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이다.

2022년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52.8%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장애인'의 기준이 없어 돌봄사각지

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을 위해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이 7-10명인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자동차세를 감면하는 현행법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휠체어를 실어야 하는 등 차량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수단인 만큼 배기량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증심사 옆 '의재 문화유적' 야간 관광지 변신

### 광주 동구, 춘설차밭 복원 등

광주시 동구가 국비 등 280억원을 투입해 무등산 증심사 옆 '의재 문화유적'을 야간 관광지로 변신시킨다.

동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점막 야행관광 공간연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업은 의재 문화유적(5만 2876㎡)과 춘설차밭(4만 4727㎡)을 복원하고 야간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동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사업을 접목시켜 국비 등 총 사업비 280억 3600만원을 확정했다.

의재문화유적은 남종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 선생이 생전 활동했던 공간으로, 관풍대, 문향정, 춘설현, 의재 묘소, 춘설차밭 등으로 구성됐다.

춘설차밭은 증심사에 딸려 수백 년을 내려온 야생차밭으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다원으로 쓰다 광복 이후 버리고 간 곳을 허 선생이 1946년 구입, 우리 고유차 '춘설'을 키운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최근 관리주체인 (사)삼애학회의 재정난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춘설차밭은 작품이 우거져 원형을 잃어버렸으며 허 선생의 별채이자 다례 실습장으로 활용됐던 '관풍대'는 지난 2013년 발생한 화재 흔적조차 지우지

못하고 그늘음이 남아있는 등 방치된 상태다.

동구는 춘설차밭 진입로를 정비하고 차밭을 복원한 뒤, 야간 조명을 설치해 야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문향정에는 '춘설터 뮤지엄'을 세워 전시공간 및 카페로 리모델링하고, 관풍대에는 '의재 하우스'를 조성해 명상 및 차 체험 공간으로 만드는 등 계획을 세웠다.

의재 유적지와 춘설차밭, 윤림동 미술관, 증심사 권역 등을 아우르는 야간 여행 프로그램 '올빼미 달빛기행' 등 관광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동구는 오는 7월부터 춘설차밭 진입로 정비공사를 시작하고, 내년 1월부터 전반적인 조성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전남 봄비 그치고 황사

주말을 맞은 광주·전남 지역에 '봄비'가 그치고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황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광주·전남의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15-19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최대 초당 9m의 강한 바람도 불겠다.

주말까지는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기온은 4-10도, 낮기온은 16-21도로 평년

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주말 동안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광주·전남 전역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29일 광주·전남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이고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다. 황사의 영향은 토요일인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 사이 황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정리: 이은이

출판사: 문학사상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이은이 | 조선의  
퍼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